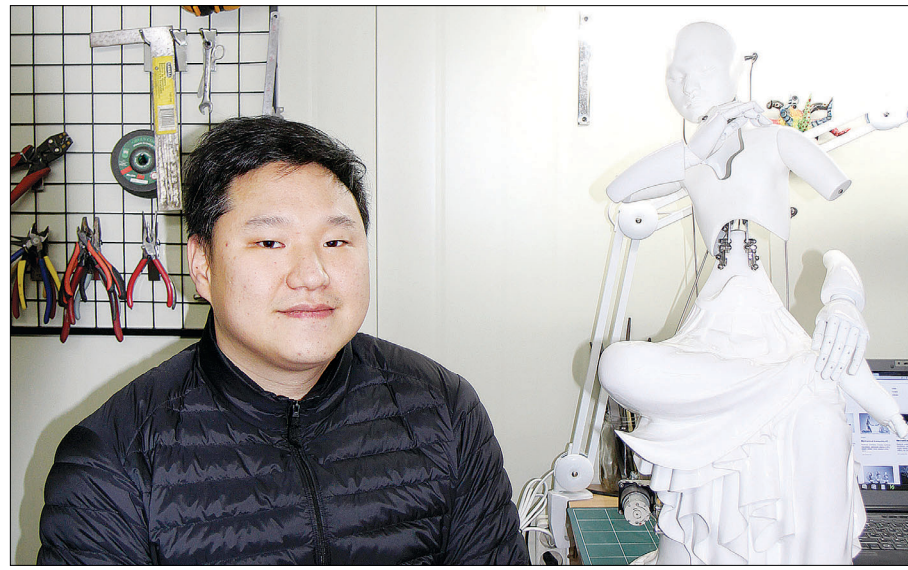


문화

# 초월적 존재 '로봇 붓다'의 탄생 예술과 과학 만나 역동美 완성

## 왕지원 조각가

왕지원 작가의 작업실은 문래동 예술촌에 위치해 있다. 온갖 공구들이 벽에 걸려 있는 그의 작업실에는 흡사 공구 가게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토피바퀴를 이어붙이고 우레탄 재질의 고무찰흙으로 형태를 만들고 전기를 연결시켜 동작을 완성해내는 그의 작업은 과학과 예술이 결합된 총체적 예술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가사유상 비천상 천수천안관음상 등의 불상이 있었다.



왕지원 작가는 전기와 연결시켜 움직임을 만들어낸 반가사유상 등의 작품으로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 토피바퀴와 우레탄 재질 소재로 움직이는 붓다 형상 완성해 내 붓다아트페스티벌 초대작가로도

와 기계문명의 상징 로봇의 결합이죠. 반가사유상을 제 나름대로 재해석해 형상을 만들어냈어요.”

평소 불교에 관심이 많았기에 불교미술을 공부하며 작가 나름의 상상력을 작품에 투영시켰다. “많은 종교들이 천국을 말하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평소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팟캐스트를 즐겨 듣고 있는데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공부하게 됐요. 그런 면에서 불교는 늘 관심 분야였고 이런 정신을 작품에 투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그의 작품은 국내는 물론 네덜란드 중국 영국 등 해외에서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며, 왕 씨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젊은

작가가 되었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기계 문명의 이기에 대해 한번쯤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계 문명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안에서 제 작품을 통해 기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자신의 현실을 한번쯤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작가는 시계 부속품을 활용한 만다라로 새로운 작품 세계를 펼쳐 나가고자 한다. 만다라가 지닌 현대인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었으면 한다고. 내년 3월 영국 전시도 계획중이다.

한편, 붓다아트페스티벌은 기획전 ‘현대미술로 보는 붓다의 지혜’ 초대 작가와 평론가들과의 만남을 갖고 있다. 2월 11일에는 왕지원 작가와의 만남이 작가의 작업실에서 이루어졌다. 명법 스님, 양효실(서울대 미학과 강사), 이빛나(미술 비평가) 씨 등 세 명의 평론가들이 함께하며 신성과 모독 그 경계의 선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즐거운 작품 세계를 펼쳐나가고 있는 왕지원 작가의 작품 세계를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천수천안 관음을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이 작품에는 중생을 보살피는 자비의 마음이 실려 있다.



붓다아트페스티벌 측이 주최한 작가와 평론가와의 만남. 왕 작가의 문래동 작업실에서 이루어졌다.

## 문화속에서 만난 佛敎

# 욕망 향해 질주하던 한 남자의 참회

## SBS 드라마 '편지'

남자는 검사다. 약자를 보살피고 사회의 정의를 위해 희생하는 그런 검사는 아니다. 국가가 부여한 검찰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데 한 치의 가책도 없으며, 흔쾌히 권력의 총련이 된다. 너무도 가난했기에 명문대 진학을 포기하고 지방대 수석으로 학교를 다녔고 혼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어머니를 위해 이 악물고 열심히 공부해 검사가 되었다.

보상 받고 싶었다. 가난해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갖고 싶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욕망은 자신과 같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권력의 울타리 안에서 행하는 그의 비리는 당연했다. 아니 당연했다. 그러던 어느날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 남은 시간은 6개월. 맹목적으로 달려던 그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겼다.

드라마 편지는 한 남자의 참회에 관한 이야기다. 물론 그 참회는 단순히 아니다. 지난 시간의 흔적들은 큰 흉터를 남겼고 그 흉터를 드러내 수술하기에 너무나 많은 사건과 사람들이 얽여 있다.

드라마 초반은 박정환(김래원)과 신하경(김아중 분)을 중심으로 두고 벌이는 선악 구도인 듯했다. 선을 대변하는 신하경 뒤에는 법무부 장관 윤지숙(최명길 분)이 있었고 악을 대변하는 박정환 뒤에는 검찰총장 이태준(조재현)이 있었다.

드러내놓고 욕망을 탐하는 조재현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법조계의 희망으로 상징되는 윤지숙은 ‘법은 하나야 너한테도 나한테도’ 라며 법의 정의 실현을 외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인도 악인도 없다. 모든 경계가 무너져버린다. 윤지숙과 이태준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혹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치고 박고 싸우는 적이 되고 때로는 모종의 거래를 통해 아군이 된다. 한 순간의 권력을 누리기 위해 속삭이게 쫓고 쫓기며 역전에 역전이 거듭된다.



드라마 편지는 권력의 달콤함과 허망함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돌아보게 한다.

〈빈두설경(賓頭設經)〉에 나오는 ‘흰쥐와 검정 쥐’ 이야기는 욕망의 달콤함에 도취된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유적으로 풀어놓았다. 한 남자가 큰 광야에 나갔다가 미친 코끼리 한 마리를 만났다. 너무 놀라 뒤도 돌아볼 겨를 없이 도망쳐 가다가 등나무 넝쿨을 붙잡고 우물 쪽으로 간신히 몸을 피할 수 있었다. 살았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던 그는 또한번 놀라게 된다. 우물 네 구석에서는 네 마리의 독사

든 것을 다 잊고 행복에 도취되고 만다. 그러는 동안 대지에는 난데없이 불이 나 사망이 모두 불타버렸다.

‘권력’이라는 달콤한 꿀 맛을 얻기 위해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 모르는 드라마 속 어리석은 위정자들을 보는 듯하다. 주인공 박정환은 죽음에 직면해 이제 자신을 돌아본다. 그리고 딸이 살아갈 세상은 정의로워지기를 기원한다. 딸 예린과 함께 바닷가 여행을 온 박정환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빠가 잘못했어. 그런데 아빠 미워하지 마. 아빠 미워하면 예린이가 힘들어. 할아버지 사진 봤지? 아빠도 할아버지 미워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살고 싶었는데 아빠가 바로 같았다. 아빠 미워하지 말고, 아빠 닮지도 말고, 아빠 가고 나면 우리 예린이는 엄마처럼 살아. 알았지?”

아버지가 물려준 가난의 업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 살았던 남자는 또 다른 업을 만들었다. 이제 죽음 앞에서 그의 질주는 멈추었다. 남자는 진정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말한다. “인생에 정답이 있나? 선택만 있을 뿐이지. 난 그 선택에 대해 책임지고 있을 뿐이야.” 그렇다. 이제 그는 다른 선택을 했다. 이번에 택한 그의 선택이 또 다른 업으로 남지 말기를, 욕망의 순환 고리 그 고통의 윤회에서 자유로워지길.

정혜숙 기자

## 권력의 달콤함 쫓는 위정자들

## 적도 동지도 없는 아비규환의 세계

## 6개월 시한부 선고 받은 주인공

## 참회하며 욕망의 순환 고리 끊고자

가 혀를 낼름거리고 우물 한복판에는 무서운 독룡이 독기를 내뿜고 있었다. 위에서는 미친 코끼리가 발을 동동 구르고 밑에서는 용과 뱀이 함께 혀를 낼름거리니 오도 가도 못한 남자는 오직 하나의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그 등나무 넝쿨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이게 웬일인가? 등나무 넝쿨을 흰 쥐와 검정 쥐가 서로 번갈아가며 씹어먹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위를 보니 나무의 벌집에서 몇방울의 꿀이 떨어져 그의 입으로 툭툭 떨어지니 모



### 국내산 (청도 불광사 사찰 내 재배)

## 1 고소득 작물 슈퍼도라지

- 슈퍼도라지 '씨' 비닐부착 판매 : 250평기준 50만원
- 모종 예약 대량구매시 모종 1주 300원
- 종이컵 1개 분량 '씨' 3만원

## 2 하수오 씨

- 모종 예약 대량구매시 모종 1주 500원
- 종이컵 1개 분량 '씨' 1만원

적하수오

- 하수오 된장 : 1kg 5만원 • 하수오 고추장 : 1kg 5만원
- 하수오 건조분말 판매 개시(kg당)

하수오 된장, 하수오 고추장은 청도 서릉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하수오로 만듭니다.

■ 서릉농장 :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목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 김남필)

인터넷 검색 : 하수오 남서

## 제9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5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제,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묵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음(매불이음), 대령, 관육, 응호계(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정, 시왕도정,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송, 요직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식, 호적(대평소), 전통의식타법, 특 강 : 종사이음,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 강 주 : 석범은 스님
-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오후 5시
-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 별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북성9길 28 (북성리 1095)  
대한불교영남총가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 974-2705

###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 대원문재현 선사님의 69 번째 저서 출간!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7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禪門拈頌), 전 30권 중 27권 출간! 파름, 향림, 동산 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승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바로보인 유마경

모든 이치를 통달해 본재에 자유자재 했던 유마거사의, 부처님 대상을 흠쓸 었던 활구법문이다. 읽는 것만으로도 본재가 트인다는 유마경,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유마거사의 의중을 속속들이 드러낸 번역과 <대원선사 토끼밭>로 이 시대의 최상승법을 제창하였다.

### 바른 불자가 됩시다

###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 누구나 공금한 33가지

###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031-534-3373